

문화산책

백승현

대동문화 전문위원



2023년 11월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가 2025년 4월에 재개봉되어 많은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영화 플랫폼에서 이 영화를 봤다. ‘어른 김장하’. 문형배 판사가 2011년 2월 진주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오랜만에 빈 김장하 선생님께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싶었다. “공직자가 사는 밥은 먹을 수 없다.” 단호히 거절했다. 1년 후 인사 발령이 나서 진주를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청했지만 선생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아득 바둑 우거 겨우 승낙을 얻었고 판사는 김장하 선생에게 해물탕 한 그릇을 대접했다. 해물탕은 7000원이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후시 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감이라.” 김장하 선생은 이런 당부를 또 잊지 않았다.

2019년 4월 9일 국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인 사정문화가 열렸는데 첫머리에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자기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해 경상남도에 기증했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7000원짜리 해물탕의 교훈

했으며 진주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 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관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은 저에게 자유에 기초해 부를 쌓고, 병등을 추구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밖으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른 김장하’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역사적 판결문을 작성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그리고 그 판결을 위해 혹독한 겨울에 거리에 나와 ‘탄핵’을 외친 국민들 사이에 선한 영향력의 ‘나비 효과’가 이어졌다. 그 나비떼의 날갯짓이 찾아간 곳은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였다.

지난 4월 10일에 광주에서 춤과 춤꾼의 에피소드극 ‘별, 빛 맞춤’ 공연이 있어서 공연장을 찾았다. 이 공연은 5·18 시민군 기획실장 김영철 열사의 딸 춤꾼 김연우씨가 공연 단체 몸짓 플러스 나비연과 놀이매 신명 단원들과 협력해 만든 무대였다.

연우씨의 아버지는 5·18 때 시민군 기획실장으로 5월 27일 새벽 계엄군에 맞서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가 총상을 입었다. 계엄군에 체포된 뒤 혹독한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김영철 열사는 1981년 석방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을 오가는 등 18년 간 힘들게 투병하다가 1998년 8월 16일 영면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들불 야학’의 삼촌들 즉 박용준, 윤상원, 박관현, 신영일, 박효선 등과 그 ‘들불 야학’ 있던 ‘광천동 시민아파트’ 그리고 5·18의 기억,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과 이후 열사의 딸로 살아왔던 삶, 어머니 김순

자 여사의 고단했던 삶 등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만든 춤극이었다. ‘들불야학’은 1978년 시작되어 1981년까지 이어진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으로 1980년 5·18민중항쟁 때는 항쟁의 지도부가 되고 ‘투사회보’를 만들어 항쟁의 진실을 알렸다.

연우씨가 이 공연으로 염원한 것은 그 ‘별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빛’ 그리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가 이루어져 온 이 광주라는 고장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었다.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무용가로서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연우씨는 말했다.

흥학(興學)은 학교 교육을 통해 옳고 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교민(敎民)은 주민의 교양을 높여 문화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예(禮)는 도덕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악(樂)은 삶을 고양시키는 예술교육이다. 그렇게 말하고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강조한다. “목민관은 스승이 학문을 가르쳐서 사람의 품성을 기르는 도덕과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 문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제전을 열어야 한다.”

옛적의 목민관, 지금으로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장들과 공무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이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광주 정신의 문화적 승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5·18의 정신을 오해하는 것이다. 예악이 흥성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꿈꾸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도시의 품격은 모든 시민들의 꿈의 날갯짓에 있다.

기고

김부현

광주 남구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 법적으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도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 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

광주 남구의 도시공원은 2024년 10월 기준 총 88개소다. 면적은 193만5120.8㎡다.

국제 구역 축구장(약 7140㎡) 기준 약 271개 규모다. 세부적으로 근린공원 19개소, 어린이공원 60개소, 소공원 6개소, 수변공원 2개소, 도시농업 공원 1개소이다.

공원은 현대 도시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공원은 산책, 운동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원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 공연, 축제

공원은 누구의 것일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고민

들이 공원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한다.

환경적 기능도 상당하다. 나무와 식물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대기질을 개선한다. 녹색 공간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끝으로 공원은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을 준다. 녹색 공간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잘 조성된 공원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남구는 모든 시민의 쾌적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맨발 산책로 조성 문제로 인한 잔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공원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의 공동 자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원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건강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공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곳이다.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원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예술 작품이 설치된 공원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생태 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학습의 장을 제공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동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을 돕는다.

하지만 공원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원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다른 이용객을 배려하며,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또 공원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모두가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꿔 나갈 때, 공원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사설

‘싱크홀’ 포비아 확산…종합대책 세워야

‘싱크홀 포비아’, 이른바 땅꺼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다 땅속에 묻혀 있는 전체 상·하수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돼 있는 탓에 그동안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는 모두 105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광산구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구 25건, 서구 25건, 북구 19건, 남구 10건 순이었다. 또 2014~2023년 10년간도 광주에서 198건의 싱크홀이 발생, 2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17대가 파손됐다고 한다.

울해도 땅꺼짐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47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땅꺼짐 규모는 넓이 0.63㎡(0.7m×0.9m), 깊이 1.7m로 파악됐으며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다. 또 광산구 송정공원역과 서구 운현역 인근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났다. 땅꺼짐 현상은 아니지만 지난달 25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2호선 4공구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보도블럭이 내려앉고 100m 구간에 균열이 생긴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 노후 하수관로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도시철도(지하철) 공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후 현재까지 공사 관련 싱크홀 민원 6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 상수관의 경우 56.2%가 설치한지 21년이 지났고 하수관은 67%가 설치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돼 있어 언제든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가 현재 상·하수도 관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자치구·한전·가스 공사 등과 함께 지하시설물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싱크홀 안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광주에서 싱크홀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악의 사고를 막기 위한 광주시 자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동구, ‘동명 브랜드 타운’ 성공하길

광주 동구 동명동은 한때 광주의 대표적인 부촌 및 학원가가 있는 동네로 유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몰락했고 구도심 또한 쇠퇴한데다 신흥 부촌까지 등장하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이후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동리단길’이라 불리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가로 자리매김 중이다. 광주 동구가 이 일대를 ‘동명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 전국 대표 골목 상권으로 만든다고 한다.

현재 이 곳은 SNS 입소문을 타고 카페와 맛집이 유명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젊은이의 발길이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소규모 개인 브랜드 형태로 운영돼 시장 변화에 따른 폐업 또한 늘어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동명동만의 로컬 브랜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난해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우수 상권 집중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고 동명 브랜드 타운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들은 ‘동명, 칸타타 산책길’ 비전의 마스터플랜 수립, 로컬 브랜드 구축을 통한 스토리 상품의 정체성 개발, 디지털·커피·로컬 매거진 등 동명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동명커피산책’ 굿즈 개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열린 동명커피산책은 ‘커피’와 ‘인문’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4만명 이상의 방문객, 참가 매출 32% 상승, 타 지역 방문객 25% 증가 등을 견인하며 광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연속 2년 차 사업으로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 상징 조형물 및 테마 거리 조성, 동명 로컬 굿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겹경사도 맞았다.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이다. 동명 상권 청년 창업가와 주민의 협업모델인 골목리더 ‘동명크루’를 구체화하는 등 상인의 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하게 됐다.

문화, 역사, 자원 등 콘텐츠가 풍부한 동명동은 광주를 대표하는 로컬로서 가치가 높다. 동명동만의 빛깔을 담은 ‘동명브랜드타운’ 프로젝트가 성공해 전국 최고의 로컬 골목상권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